

# 로동신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34호 【루게 제24912호】주제104(2015)년 5월 14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 40만산 방향성대발파 성과적으로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투쟁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합니다.》**

지난 10일 단천광업건설연합기업소가 맡아 수행하는 검덕지구의 미광침전지공사장에서 40만산 방향성대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발파신호가 내려지자 두개의 산봉우리가 수천간갈래로 부서지며 치솟아 연제위에 휘부러졌다. 순식간에 수십만㎡의 사석과 토량이 성토구역에 옮겨지는 장쾌한 광경이 펼쳐졌다. 연합기업소 기술인원들의 말에 의하면 이번엔 진행된 방향성대발파의 효율은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였으며 대단한 로력과 연유 등을 절약하면서도 최단기간에 공사를 다그쳐 끝낼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었다고 한다.

이날의 40만산 방향성대발파의 장쾌한 폭음은 만년을 예치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선열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로 10월의 대추전장에 자랑찬 로력적전열을 안고

### 단천광업건설연합기업소에서

몇몇이 들어서는 연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힘찬 진군의 발자취를 따라 나란히 뻗어간 북방의 산과 골짜기로 깔없이 메아리쳐 갔다.

단천광업건설연합기업소는 지난 수십년간 나라의 중요대산건설장마다에서 자랑찬 위훈을 떨쳐온 힘있는 건설기업소이다. 최근에 이곳 건설자들이 맡아 진행하고있는 여러 건설대상중의 하나인 검덕지구의 미광침전지공사도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공사가 끝나면 앞으로 검덕지구에서 나오는 많은 량의 미광을 처리하여 복권에 언제나 맑은 물이 흐르게 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에 힘입어 단천광업건설연합기업소에서는 또 하나의 돌파구가 열리게 된다.

몇해전 연합기업소앞에는 자연재해를 입은 미광침전지공사파괴가 나았다. 방대한 공사량에 비해 로력과 운수기재, 사석원천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공사원칙을 예속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당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떨쳐나선 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조건이 마련되기를 앉아서 기다리지 않

고 주동적으로 기존공법을 타파한 날려쌓기발파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공사기일을 훨씬 단축할 통이 큰 일꾼을 전개하였다.

40만산 방향성대발파는 기업소가 생겨 처음 해보는 일이고 대발파를 위한 수백m의 폭약장입경도폭기와 배수판로망공사를 비롯한 하부구조건설을 선행시켜야 하였다.

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한덩어리가 되어 결사적인 투쟁에 산악같이 일떠섰다.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미광침전지언제를 쌓게 될 주면의 산발들을 밟아 뚫도록 노내리며 발파위치를 정하고 그 기술적담보를 확충하기 위해 과학연구기관을 여러차례나 찾았다.

뚜렷한 공격목표에 연합기업소적으로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되였다. 연합기업소에서는 10여개 중요대상공사를 맡아 진행하는 긴장한 속에서도 물론치 못한 운수기재, 사석원천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공사원칙을 예속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당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떨쳐나선 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조건이 마련되기를 앉아서 기다리지 않

1월의 장추위속에서 하루 최고 2500㎡의 사석을 채취하고 수십명으로 구성된 돌격대원들이 함박전으로 폭약장입경도폭기작업의 적지 않은 몫을 해체하였으며 지수언제 쌓기에서 최근기간에 불수 없었던 높은 공사실적이 기록되였다.

검덕광업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주인공 립장에서 압축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적극 보장하고 로력적으로 힘있게 지원하였다.

단천지구광업총국의 일군들과 광업연구소, 해당 과학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은 건설자들과 공사를 함께 책임진 립장에서 기술적문제를 해결하고 설계도면의 신 사나, 점 하나에도 탐구의 열정을 기울였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대승의 양면면 의의가 높은 공사실적으로 이어지도록 그들의 정진력을 총폭발시켰다. 호소성이 강한 침전전, 방송선로 등 최선진공기재와 운수기재로 세계를 뛰어넘는 속이 시공관 건설사회의 경쟁도표로서의 붉은 줄들이 커돋움하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세차게 맥박치는 속에 련일 혁신이 창조되였다.

### 모란봉악단의 진군나팔소리

◇ 인민이 사랑하는 모란봉악단이 드세찬 음악포성을 울리고있다. 조선인민군 제 5차 훈련일군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의 공연이 텔레비전으로 방영되고 공연무대에 올려져진 새 노래들이 당보에 속속 게재되였다.

모란봉악단에서는 시대정신을 민감하게 반영한 《가리리 백두산으로》, 《속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내 마음》, 《인정의 세계》를 비롯한 많은 새 노래들과 명곡들로 생기발랄하면서도 전투적기백이 넘치는 특색있는 공연무대를 펼쳐온 나라를 격조시키고있다. 어디서나 모란봉악단에 대한 이야기가 끊어지고있으며 초소와 교정, 일터마다에서 모란봉악단의 새 노래들에 대한 보급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있다. 모란봉악단의 음악포성의 메아리는 전체 군대와 인민을 무한히 흥분시키며 혁명열, 투쟁열을 북돋아 주고있다.

◇ 오늘날 모란봉악단은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최단기간을 계속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항일유격대나팔소리이다.

모란봉악단의 음악에 바로 당의 목소리, 시대와 혁명의 요구가 담겨져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어떤 정신과 투쟁기풍, 창조방식으로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을 다그쳐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투쟁과 생활의 교과서와도 같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인 노래는 투쟁의 대오에 높이 올라가는 진군가이며 시대의 행진곡이다.》** 모란봉악단의 새 노래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는 길은 경애하는 원수님처럼 언제나 마음속에 백두산을 안고 백발백중의 혁명신념으로 만년을 뚫고나가는 길이며 원수님을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쉬임없이 다그치는 길이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또한 천만군이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따뜻한 사랑과 인정의 세계를 인민의 목소리, 인민의 감성 그대로 소박하면서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반영하여 우리 원수님을 중심으로 한 내 조국의 혼연일체를 더욱 굳건히, 더욱 뜨겁게 다져주고있다.

들음수록 인상깊고 여운이 큰 모란봉악단의 노래들은 몇천만의 식량에도 비할수 없는 거대한 힘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위해한 수령님들의 유혹관철전, 당정책결사옹위전으로 떠밀어 주고있다. 모란봉악단의 음악이야말로 항일유격대나팔소리처럼 천만군의 심장을 울리는 사상의 명중포성, 집중포화이다.

◇ 모란봉악단의 진군나팔소리에 승전포성으로 화답하자. 인민군장병들은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일군대회 참가자들을 위해 뜻깊은 모란봉악단공연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가슴에 새기고 주체적군사전략술과 백발백중의 사격술, 무쇠같은 체력을 소유한 진척배기싸움군, 백두산로망이들로 준비하기 위한 백두산훈련영웅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모란봉악단의 새 노래들에 담겨진 당의 사상과 의도, 시대의 요구를 뼈에 새기고 누구나 어디서나 모란봉악단의 노래를 부르며 백두의 행군길을 다그치고 자기 단위에 맡겨진 전투과업을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무조건 결사관철해나가야 한다. 문학예술부문 창작자, 예술인들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신봉서 내내리는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에 발맞춰 문학예술전반에서 하루빨리 천체를 불사르고 시대를 격동시키는 명작목표를 마련해나가야 한다. 조국해방 70주, 당창건 70주 대추전장이 눈앞에 다가오고있다. 또다시 모란봉악단의 진군나팔소리에 심장으로 화답하며 오늘의 총공격전에 더욱 힘찬 박자를 가하자.

### 물절약형농법으로 영농공정을 다그친다

황해남도에서 10여만정보의 논갈이와 마른논씨레지기 진행, 모내기 본격적인 단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호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에 떨쳐나선 황해남도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10여만정보의 논갈이와 함께 마른논씨레지기를 끝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 물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영농물자를 원만히 보장하며 생산조직과 지도도를 실정에 맞게 하여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압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물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일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도에서는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모든 농촌들에서 논갈이와 함께 마른논씨레지기

를 동시에 진행하여 모내기를 적기에 다그쳐 끝내도록 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농장, 작업반, 분조들에 내려간 도와 군의 당, 행정일군들과 협동농장일군들은 물을 대고 논씨레지기를 하던 종전과는 달리 마른논씨레지기를 해야 하는 가을 농업근로자들속에 깊이 인식시키면서 기계화초병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 데 힘을 쏟았다.

씨레지기의 앞장에 벽성군 옥정협동농장이 섰다. 깊이갈이를 보장할수 있는 물취급이보습과 4~5면보습 등 편결농기계군비를 빈틈없이 갖춘 농장에서는 기계화수단을 총동원하여 논갈이를 하는 동시에 마른논씨레지기도 심필전의 방법으로 해제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모든 농사작전을 물절약형으로 전환시키고 모내기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는 제령군 삼지강,

안악군 오곡, 경지, 연안군 오현, 읍, 정촌협동농장을 비롯한 영도읍적단위들도 물절약형농법을 빈틈없이 받아들였다. 여러가지 영농방법에 따르는 버모기르기, 논갈이와 마른논씨레지기 등 모내기작업을 통해 참가자들은 당정책대로 물절약형농법을 적극 받아들인 불리한 기후조건에서도 얼마든지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수 있다는 신심을 더욱 굳히었다.

모든 농촌을 빈틈없이 갖추고 모내기에 들어간 도의 농촌들에서는 농업부문 일군들이 모든 영농공정들을 드림없이 내밀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도에서는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모든 영농공정들에서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모내기를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리승철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호를 높이 받들고 대상설비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에서-

### 뜨락또르부속품 및 자재생산성과 확대

기계공업성아래 공장들에서 사회주의협동법들에 더 많은 뜨락또르부속품과 자재들을 생산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 날을 따라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성이래 여러 공장의 로동계급은 4월에도 7종에 1만 수천개의 뜨락또르부속품들을 생산 보장함으로써 성적인 4월 영농부속품생산계획을 1.4배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최현정밀기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1.4분기와 4월에 이어 일일에도 높은 생산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연로블로, 분사기 등 4월 영농부속품생산과제를

1.5배이상 넘쳐 수행한 소형 연로블로직장, 자력갱생직장, 정밀직장, 링그가공직장의 로동자들은 직장, 작업반사회주의 중산경쟁의 불길같이 생산성과를 부단히 확대하고있다.

금성뜨락또르공장에서는 전기기, 자재보장조건에 맞게 부속품별생산일정을 기동적으로 세우고 자동차위생치차, 번속치차 등 치차생산에 힘을 집중함으로써 4월에 이어 이달에도 그 생산량을 늘리고있다. 강서기관부속품공장의 로동자들도 기동도생산에 힘찬 박자를 가하고있다.

평양326전선공장에서 4월

에 농업부문에 보내줄 전선류생산과제를 4배이상 수행한 기세를 늦추없이 공격속도를 높이고있다. 평양메이링공장, 광명메이링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농기계들의 우량한 동용이자 압곡중산이라는 자각을 안고 내부에 비를 적극 탐구하면서 각종 메이링생산투쟁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안주철연물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자재보장대책을 앞질러 세워가며 농기계수리정비에 필요한 전철연직생산전투를 더욱 힘있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리병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선군혁명영도도 그러치 바쁘신 속에서도 지난 4월 말과 산세에 힘찬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찾으시어 발전소건설장에 발취하는 청년들대원들의 애국심은 우리 나라가 세상에 들도 없는 청년강국이라는 것을 힘있게 과시하는것으로 된다라고 하시면서 당창건 일흔둘째 1호, 2호발전소건설을 끝내는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 찾으신 것을 축하드리고, 청년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소식에 접하여서 지난 4월 20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에 전국적으로 2700여명의 청년들이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으로 탄원하여 달려나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새 세기의 창조자로서 조선속도를 창조하는 데서 한뼘 단단히 하여야 합니다.》** 남포사범대학의 20여명의 졸업생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청년들대원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하고보니 발전소건설장이야말로 오늘 우리 청년들이 서야 할

제1선창호라는것을 깊이 깨닫게 되였다고 하면서 발전소원공의 날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건설장으로 달려나갔다. 남포시 와우도구역광장사업소 로동자 공중성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발전소건설장에 세겨진 청년들대원들의 위훈을 새로운 시대로 값있게 평가해주시는것을 듣고 구역안의 5명의 청년들과 함께 발전소건설장으로 탄원하였다.

울려 퍼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멀고 험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아주시는 데 려의 땅에서 나서지 않는 청년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야 한다고 하면서 발전소건설장으로 탄원하였다. 함경북도 회대군 하평협동농장 수장인 리금철은 당에서 그토록 중시하는 발전소건설에 적은 힘이나마 바치는것이 어찌나 소중한 일인가를 느끼고, 청년들이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으로 탄원하였다고 하였다.

평안남도 속천군일용품공장 로동자 김광일을 비롯한 군안의 15명의 청년들도 당은 청년들을 굳게 믿으며 청년들이 강성국가문명을 남김없이 달게 건설하는것이 당중앙의 결심이고 의지라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서 우리 청년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가 얼마나 큰가 하는것을 가슴뜨겁게 느끼게 되였다고 하면서 발전소건설장으로 적극 탄원하였다.

울려 퍼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멀고 험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아주시는 데 려의 땅에서 나서지 않는 청년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야 한다고 하면서 발전소건설장으로 탄원하였다. 함경북도 회대군 하평협동농장 수장인 리금철은 당에서 그토록 중시하는 발전소건설에 적은 힘이나마 바치는것이 어찌나 소중한 일인가를 느끼고, 청년들이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으로 탄원하였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자강도 통림군청년동맹위원회 지도원 고일혁과 체신성 초급청년동맹부위원장 리영주, 황해남도 안악군 읍협동농장 초급청년동맹위원장 림영광, 평안북도 박천군 학안고급중학교 청년동맹, 소년단책임지도원 현정영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100여명의 청년동맹

일군들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관철에서 기수, 전위투사가 되였다고 하면서 발전소건설장으로 탄원하였다. 각 도, 시, 군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해당 당조직의 지도도에 당의 부름을 심장으로 받아안고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으로 탄원한 청년들을 떠나 보내는 사업을 의의있게 조직하였다.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역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으로 탄원한 구역안의 20여명의 청년들을 떠나보내기에 앞서 지난 4월 25일 포항광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드리고 총정의 의의모임을 진행한 후 말씀혁명사적지에 대한 참관사업, 연도한영을 의의있게 조직해주었으며 청양구역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6일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으로 탄원한 구역안의 20여명의 청년들로 해당 지역에 있는 인민군물사묘주변에 나무심기를 진행하여 그들이 숭고한 조국을 지니고 조국의 만년대흥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앞장서도록 하였다.

황해북도 연산군청년동맹위원회에서도 지난 4월 23일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으로 탄원한 군안의 10여명의 청년들이 군소제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꽃바구니를 진전하고 결의모임을 진행한 후 연도한영을 조직해주었다. 평양시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7일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청년공원외곽주공에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으로 탄원한 시인의 170여명의 청년들에 대한 한송모임을 진행하여 그들이 연도한영을 조직하여 그들이 발전소건설에서 위훈을 창조해나갈도록 힘과 용기를 인제주었다.

이밖에도 평안북도 의주군, 황해남도 해주시, 량강도 혜산시를 비롯한 각 도, 시, 군청년동맹위원회들에서 해당 당조직의 지도밑에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으로 탄원한 청년들을 떠나보내기 위한 사업을 의의있게 진행하여 그들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지금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는 경애하는 원수님 사상과 숭고도 발걸음도 함께 하며 역세에 전진해나갈 선군청년전위들의 불타는 기개와 의지가 용암마냥 끓어넘치고 있다.

리신향



남포시 항구구역산림경영소에서 나무모비배관리를 잘하고있다. 본사기자 리병춘





# 최상의 문명을 최상의 속도로 창조해가는 총공격전의 기상

## 미래 과학자 거리 건설장에서

### 단숨에 솟구치는 비약의 나라를 펼쳐 주시여

수도 평양의 대동강변에 선군 조선의 영웅적전군가가 힘차게 울리고 있다.

우리들의 웅대한 구상과 발기에 따라 교육자들에게 안겨주는 또 하나의 실용인 미래과학자거리 건설이 본격적인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패일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며 거창한 규모로 일떠서는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에 휘몰아치는 비약의 열풍은 어디에 원천을 두고있는 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선군조선의 새로운 비약의 변태를 펼쳐 나가는 데서 건설부문 사업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선군으로 존엄을 조국명우에 하루빨리 사회주의문명강국을 보완하기 일떠세우려는 것은 우리 당의 현대화 뜻이며 승고한 애국의 지이다.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 사회주의문명을 만방에 파시하게 될 그 이름과 더불어 또 하나의 대고조전역으로 불리우는 이곳에서 새겨져 나래치는 시대정신을 예루로 걸갈하는 우리의 귀전에 오늘날 드드건 울려온다.

뜻깊은 올해선년사에서 미래

과학자거리를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들을 훌륭히 완공하여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다.

미래과학자거리건설을 구상하신 때로부터 새 거리건설에 공로로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로서의 성취추진을 위해 불철주야의 로고를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는 그 얼마나 가슴뜨거운 것인가.

모든 대동강기슭에 일떠세울 새 거리의 이름을 《미래과학자거리》로 명명해주시고 살림집구획과 다양한 건축물들의 형성인들을 일일이 보아주시며 주신 것에서 고도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것에서 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의 손길은 미래과학자거리 일떠세우는 건설들의 배치와 건축형식,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헌일이 응심되고 다양한 사상으로 일떠세워졌다.

뜻깊은 올해 평명정절을 앞두고 건설들의 모습을 비행기에서도, 현장에서도 모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시 부장조국건설구상이 반드시 실현되리라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었다고,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은

1970년대, 1980년대의 건설전투장을 방불케 한다고 하시면서 이곳에서 오늘의 평양정신, 평양속도가 창조되고 있다고 이처럼 만족해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날 공사장전역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를 계속 확대하여 대상별, 단계별과제를 일일정확대로 밀고 나감으로써 미래과학자거리건설을 통하여 조선의 결집은 곧 실현이라는 진리를 새 세상에 다시 한번 힘있게 파시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고 우리 인민이 쓰고살 건축물들은 먼 후날에도 손색없이 완전무결해야 하며 사회주의문명국의 표본이 될수 있는 최고의 수준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승고한 뜻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에 교육자료를 위한 행복의 보금자리가 먼저 자리잡았기에 살림살이에 필요한 가구비품들과 리발소, 미용원, 세탁소, 목욕탕은 물론 옷수리국, 두두리국 등을 할수 있는 편의시설들과 상점봉사망 등 문화시설들도 구색이 맞게 꾸려주는데 대하여도 이처럼 일일이 가르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들에게 하루빨리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은 이처럼 끝을 모르는 다신한 헌여이신의 심정 그대로였다.

건축은 나라의 국력과 문명의 높이를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하다.

최고사평판이 시대를 주름잡으며 위훈을 세우려는 군인건설자들의 미더운 모습을 보았을 때, 현상에서도 보았을 것을 다 알려주라고 하시던 최상최대의 믿음과 당대한 배짱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은 또 얼마나 군인건설자들의 피땀은 가슴에 비약의 나라를 달아주었는가.

2단계건설이 시작될 때에는 능력이 있는 시공단원들을 건설장에 불러주시고 방대한 건설과제를 통해 맡겨주시며 공사장전역이 혁명적, 투쟁적, 경정열로 부글부글 끓어번지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실제 가들에게는 살림집건설의 세계적발전추세에 대한 안목을 넓혀주시고 시공단원들에게는 단숨에 솟구치고 힘을 주시며 공사과정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는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에서 단숨에의 기상이 세계에 나래치게 한 원동력으로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속에 최상의 문명을 최상의 속도로 창조하는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자들은 지금 건설부문의 건축가, 기술자들은 물론 공사에 참가한 전체 군인들과 건설자들이 눈부신 기적창조의 주인공으로 자라는 또 하나의 비약적인 성장과정으로 되고 있다.

지난 기간 사회주의대건설전투장에서 자랑한 위훈을 이룩한 세진 여러 부대 군인들과 능력 있는 시공단원 건설자들은 당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고 건설장에 달려와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2단계건설이 시작되어 한달 남짓한 기간에 10여개 단원들이 맡은 최고층살림집물조들이 아름다운 미래를 앞당기며 폭풍처럼 내달리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보여주듯 경쟁적으로 솟구치고 있다.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조국명우에 로동당시대의 창조물인 미래과학자거리 완공되는 그날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문명을 파시하는 눈부신 새 거리를 바라보며 어머니 우리 대를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릴 것이다.

조선인민군 최영철소속부대

최영철소속부대라면 잘 몰라도 창건거리건설에서 맨 먼저 승리의 기발을 휘날린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라면 누구나 알수 있다. 이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미래과학자거리건설에서 또다시 두각을 나타내며 속도와 질보장에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기적은 결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기적을 낳는 어머니는 대중의 양양된 정신력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켜야 합니다.》

창공의 첫발을 박던 그날 부대의 열광적인 장엄한 빛이 어려웠다.

부대의 책임일군인 백일남중위가 말했다.

《당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으로 간직하고 기이 승리의 기발을 휘날립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을 현지지도

조선인민군 최영철소속부대

최영철소속부대라면 잘 몰라도 창건거리건설에서 맨 먼저 승리의 기발을 휘날린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라면 누구나 알수 있다. 이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미래과학자거리건설에서 또다시 두각을 나타내며 속도와 질보장에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기적은 결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기적을 낳는 어머니는 대중의 양양된 정신력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켜야 합니다.》

창공의 첫발을 박던 그날 부대의 열광적인 장엄한 빛이 어려웠다.

부대의 책임일군인 백일남중위가 말했다.

《당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으로 간직하고 기이 승리의 기발을 휘날립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을 현지지도

군인건설자들

최영철소속부대라면 잘 몰라도 창건거리건설에서 맨 먼저 승리의 기발을 휘날린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라면 누구나 알수 있다. 이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미래과학자거리건설에서 또다시 두각을 나타내며 속도와 질보장에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기적은 결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기적을 낳는 어머니는 대중의 양양된 정신력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켜야 합니다.》

창공의 첫발을 박던 그날 부대의 열광적인 장엄한 빛이 어려웠다.

부대의 책임일군인 백일남중위가 말했다.

《당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으로 간직하고 기이 승리의 기발을 휘날립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을 현지지도

## 희한하고 황홀하게 일떠서는 새 거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건축체계에서 하나의 건축물을 설계해도 그것을 리용하게 될 인민들의 편의부터 먼저 생각해두고 안전되고 보건위생적이며 문화적정서적인 환경과 조건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 데 선진적인 관심을 돌려야 하며 건축의 조형예술성을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의 직접적인 발기와 현명한 령도속에 독특한 형식을 갖춘 건축물들로 형성되는 미래과학자거리는 그 위치로 보나 새 거리의 면모로 보나 안팎으로 손색없는 훌륭한 창조물로

일떠선다.

중성의 다리에서 양각다리까지의 평천강안으로 주변에 초고층살림집들과 탐시살림집들이 조화롭게 들어앉게 될 미래과학자거리에는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반영한 50층이상의 초고층살림집도 특색있게 일떠서게 된다.

모든 살림집들의 바깥벽체들은 청색과 백색, 특색타일로 산뜻하게 단장시키며 건물들의 기반층에 현대적인 봉사망들을 배치하고 지붕형식으로 새롭게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미래과학자거리살림집들의 세대당 리용면적은 110~120㎡이며 공동살림방과 부모방,

부부방과 지식방 그리고 부엌과 위생실, 창고와 구색이 맞게 꾸려지게 된다.

거리의 여러 구획들은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학교와 병원 등 공공건물과 약국과 리발소를 비롯한 편의봉사시설을 손색없이 꾸리며 곳곳에 휴식터와 체육공간도 꾸려 새 거리의 면모가 한결 이채롭게 살아나게 된다.

경치좋은 대동강변에 현대적인 미래과학자거리 일떠서는 수도 평양시는 선군문화의 중심지답게 더욱 웅장하게 변모될 것이다.

최상의 문명을 최상의 속도로 창조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지난 기간 위상과학자거리와 창건거리 리용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에서 자랑한 위훈을 아로새긴 능력 있는 단위의 군인들과 건설자들, 돌격대원들이 건설의 기분별량이 되어 공사를 맡아하고 있다.

이들은 착공한지 얼마 안되는 짧은 기간에 초고층살림집들의 방대한 기초공사를 추진하고 건물층수를 하루가 다르게 높여나가고 있다.

풍치수려한 대동강변의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에 차넘치는 비약과 혁신의 기상은 시간을 주름잡으며 아름다운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가는 선군조선의 시대정신을 가슴 벅차게 새겨주고 있다.

우리 당의 정력적인 령도와 군인들과 건설자들, 돌격대원들의 비상한 혁명적 열정에 의하여 미래과학자거리는 비약히 빠른 기간에 희한하고 황홀한 새 거리로 솟아올라 사회주의문명국을 향해 폭풍처럼 내달리는 선군조선의 영웅적기개를 만방에 시위하게 될 것이다.



## 전국농업화학부문 과학기술성공발표회 진행

전국 농업화학부문 과학기술성공발표회가 12일과 13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되었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발표회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과학원, 농업과학원, 김일성종합대학, 김제원해주농업대학 등 농업화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화원, 연구사, 박사원생들이 참가하였다.

발표회에는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여러 단위에서 준비한 수십건의 가치있는 논문이 제출되었다.

참가자들은 농업화학부문의 과학연구사업에서 최첨단과정을 힘있게 달려 여러가지 비료와 농약 등을 연구도입하는 데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소개하였다.

《벼모종환영양제의 공업생

산과 적용기술》, 《논벼이른모용 혼합살초제 (수양산2)호》, 《농작물성장조절제 디씨피에이 합성제 공중자척처리 효과》, 《식물성장조절제 (중산1)호와 (중산2)호의 농업에서의 적용》 등의 논문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발표회에서는 우수한 논문을 내놓은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식이 있었다.

돈 브라따워나이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타이외무성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손님들은 추려났은 초가집에서 환영회를 여는 시간을 보냈으며 이밖에 대포만은 주체사상당, 대동강구역 청류초급중학교, 미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타이왕국 사이의 외교관계설정 40돐에 즈음한 영화감상회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타이왕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40돐에 즈음한 영화감상회가 13일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영화감상회에는 서호원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조선 타이친선협회 성원들, 관계부서 일군들, 시내 근로자들과 돈

브라따워나이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타이외무성대표단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타이에 촬영회를 감상하였다.

대통령은 두 나라사이의 관계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관계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를 여러 분야에 걸쳐 더욱 확대발전시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나라의 자주권수호와 통일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기네-비싸우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홍선표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8일 오후 마리오 바즈 기네-비싸우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제 마리오 바즈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사를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의 위촉을 받은 특명전권대사가 8일 오후 마리오 바즈 기네-비싸우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제 마리오 바즈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사를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의 위촉을 받은 특명전권대사가 8일 오후 마리오 바즈 기네-비싸우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제 마리오 바즈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사를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의 위촉을 받은 특명전권대사가 8일 오후 마리오 바즈 기네-비싸우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제 마리오 바즈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사를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

## 원산지 사자리 체육열풍을 세차게

원산지 사자리 체육열풍이 세차게 일고 있다.

리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리능군맹위위원회에서는 대중체육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농업근로자들에게 깊이 인식시키면서 그들이 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하게 하고 있다.

일군들부터가 체육사업에 관심 을 가지며 앞장서고 있다.

올가져 체육의 날을 맞으며 진행된 체육경기가 이채로웠다. 축구, 배구, 농구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경기들이 진행될 때마다 농업근로자들은 평시에 편마한 자

기들의 기술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대중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하고 있는 농업근로자들은 건강한 몸으로 유쾌한 오락생활을 즐기며 넘쳐나고 있는 열정에 당면한 농업전투에서 원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 있다.

모든농민원 문 춘 옥

## 건설장이 자랑하는 혁신자들

조선인민군 박근수소속부대

박근수소속부대라면 잘 몰라도 창건거리건설에서 맨 먼저 승리의 기발을 휘날린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라면 누구나 알수 있다. 이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미래과학자거리건설에서 또다시 두각을 나타내며 속도와 질보장에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인민군 최영철소속부대

최영철소속부대라면 잘 몰라도 창건거리건설에서 맨 먼저 승리의 기발을 휘날린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라면 누구나 알수 있다. 이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미래과학자거리건설에서 또다시 두각을 나타내며 속도와 질보장에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속도전투년들격대지도국

속도전투년들격대지도국이라면 잘 몰라도 창건거리건설에서 맨 먼저 승리의 기발을 휘날린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라면 누구나 알수 있다. 이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미래과학자거리건설에서 또다시 두각을 나타내며 속도와 질보장에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로라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로라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라면 잘 몰라도 창건거리건설에서 맨 먼저 승리의 기발을 휘날린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라면 누구나 알수 있다. 이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미래과학자거리건설에서 또다시 두각을 나타내며 속도와 질보장에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군대는 당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을 받들어 앞으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선구자,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과학자거리 2단계건설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박근수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이들이 대공사에 진입한지는 불과 한달 남짓하다.

그동안의 실적은 대단하다. 8일 동안에 기공전물철거와 1만 3천여㎡에 달하는 버려져 리락업길소, 수만㎡의 기초굴착과 콘크리트기기를 한달동안에 완성.

이것은 지난 1단계건설의 나날 30층살림집물조를 단 40

일만에 일떠세워 경애하는 최고사평판동지의 깊은 평가를 받아안은 부대장병들의 비상한 공격속도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부대장병들에게는 건축형식이 새롭고 독특하며 기술공학적

일만에 일떠세워 경애하는 최고사평판동지의 깊은 평가를 받아안은 부대장병들의 비상한 공격속도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부대장병들에게는 건축형식이 새롭고 독특하며 기술공학적

부대가 건설대상을 맡은 것은 지난 4월이었다.

부대적으로 지휘관들의 협의가 여러차례 진행되었다.

정치일군과 후방일군까지 참가한 협의회파장에 하루에 한층씩 수심분으로부터 단 5분내에 조립하는 등 공사속도를 비약히 높일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강장한 전투가 시작되면서 이들에게 현장과 속도의 구별이 따로 없었다.

우리는 최고사평판동지의 믿음을 받아안은 병사들이다. 이런 투철한 의지를 지닌 장병들이기에 나날이 높아가는 공사속도엔 한계가 없고 팔조공사는 시작에 불과하지만 완공의 날은 벌써 이들의 눈앞에 있다.

우리는 사들러 실장을 찾아 떠났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결에 자리잡고있는 생산현장은 예전 그대로였다.

실장이 우리를 반겨맞았다. 《수요는 많이지고 생산능력은 제한되어있지, 그럼 이렇게 비해 삼라》

《그래 그동안 좀더 연구된 자료는 없습니까?》

그 말에 실장은 연구자료를 내보이며 화초들과 나무모생산에 써보았는데 그 효과가 아주 좋더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잔디밭조성에 많이 써보았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아마도 잔디가 퍼파 식물이며서 그런가 봅니다.》라고 하였다.

실장에 넘친 실장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최근에는 버섯을 기르는 단위들과 딸기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천연생물활성제를 많이 요구하는데 써본데 의하면 대단히 좋더라는 것이었다. 특히 버섯은 빨리 자라면서도 투기가 훨씬 많이 나간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한다고 하였다.

버섯이나 딸기도 알곡작물이나 남채재배와 사용방법이 같고고 물론 우리의 물음에 실장은 천연생물활성제를 500~1000배의 물에 희석하여 여러번 분무해주면 된다고 하였다. 정보당 사용량이 0.5~1kg정도이고 보통 천연생물활성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만도 하였다.

우리는 실장을 다시 만나 그동안의 연구성과자료들을 알게 된 기쁨을 안고 이곳 생산현장을 떠났다.

## 우리들의 속도에는 한계가 없다

조선인민군 박근수소속부대에서

조선인민군 박근수소속부대라면 잘 몰라도 창건거리건설에서 맨 먼저 승리의 기발을 휘날린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라면 누구나 알수 있다. 이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미래과학자거리건설에서 또다시 두각을 나타내며 속도와 질보장에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인민군 최영철소속부대에서

조선인민군 최영철소속부대라면 잘 몰라도 창건거리건설에서 맨 먼저 승리의 기발을 휘날린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라면 누구나 알수 있다. 이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미래과학자거리건설에서 또다시 두각을 나타내며 속도와 질보장에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속도전투년들격대지도국에서

속도전투년들격대지도국이라면 잘 몰라도 창건거리건설에서 맨 먼저 승리의 기발을 휘날린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라면 누구나 알수 있다. 이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미래과학자거리건설에서 또다시 두각을 나타내며 속도와 질보장에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로라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에서

로라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라면 잘 몰라도 창건거리건설에서 맨 먼저 승리의 기발을 휘날린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라면 누구나 알수 있다. 이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미래과학자거리건설에서 또다시 두각을 나타내며 속도와 질보장에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 환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돈 브라따워나이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타이외무성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손님들은 추려났은 초가집에서 환영회를 여는 시간을 보냈으며 이밖에 대포만은 주체사상당, 대동강구역 청류초급중학교, 미림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이밖에 대포만은 주체사상당, 대동강구역 청류초급중학교, 미림

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등을 참관하였다.

한편 대표단은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타이왕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40돐에 즈음하여 기념연회를 마련하였다.

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등을 참관하였다.

한편 대표단은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타이왕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40돐에 즈음하여 기념연회를 마련하였다.

## 풍력발전기를 자체로 만들어 널리 리용

염주군 주의협동농장에서 풍력발전기의 덕을 크게 보고 있다.

수리분조성원들은 여러 단위에 나가 현지조건에 부합되는 발전기들의 유형과 그 사용에서 제기될수 있는 문제들을 깊이 파악한데 기초하여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에 진입하여 몇개월만에 애용되는 발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이들은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바람속도와 풍향에 따라 날개

를 조절할수 있는 증량추를 도입함으로써 발전기의 수명을 훨씬 늘일수 있게 하였다.

이들이 생산한 수많은 풍력발전기들은 설치하기 편리하고 견고한것으로 하여 리용단위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농장에서 풍력발전기를 리용하여 과학기술지식보급사업의 중요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풍력발전기를 리용하여 과학기술지식보급사업의 중요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농장에서 풍력발전기를 리용하여 과학기술지식보급사업의 중요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풍력발전기를 리용하여 과학기술지식보급사업의 중요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농장에서 풍력발전기를 리용하여 과학기술지식보급사업의 중요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